

新心理學說과 맑스學說의 出發點 (三)

金一線

닥쳐오는 破滅의 恐怖! 鐵鎖를 切斷하고 뛰어나온 奴隸 압해서 戰慄懼伏하는 그들임에 暗行御使 出頭 當時일코, 花冠 쓰고 다라나는 원님, 말을 썩구로 타고 목 베다 부치라는 官員만 생각하여도 이 現象은 自明된다. 그럼으로 이에 구태여 그 因果律까지 說明은 略한다. 우리는 이와 가티 天體의 運動에서나 電子의 運動에서나 人間의 心理活動에서 一致를 發見할수록 그가 物質一元的인 것을 잘 알게 된다. 要컨대 刺激에 應하는 反應作用이라는 機械的인 그에서 썩나 行動은 行動한 者의 內部에서 내려나 □을 지어 活動한다 (는) 新發見에 니르렀다. 이가 實驗에서 어든 바 歸結인대서 世人의 視聽은 모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外 態度잇서 그가 流性的이라고 한대도 자못 人氣를 모은 要因일 것이다. 이것이 書肆의 店頭를 裝飾하게된 所以이다.

이에 우리는 一步를 後하여 科學的 社會主義의 鼻祖 칼, 맑스[칼 마르크스] 氏의 出發點을 吟味하여 보자. 資本主義 經濟學의 創父 아담 스미쓰氏는 利己的 個人主義가 그의 第一 出發點이다. 칼, 맑스氏의 出發點은 生에 불타는 衝動에 있다. 이에 우리는 맑스의 實在觀을 考察할 必要에 追하였다. 氏의 論文 中에서 『페이엘, 바하[포이에르바하]氏는 事物의 形態만을 現象의 外觀만을 觀察하였고, 그 內部에 動하고 잇는 바 革命的, 實際的, 批判的 意味는 理解치 못하였다.』고 함을 發見할 수 있다. 이로써 機械的, 百科全書 學者의 物質觀에 新生命을 注加한 그의 新識見, 新研究를 알 수가 있다. 卽 皮相의 物質觀을 떠나 發生學的으로 辨證法的으로 發展的으로 宇宙를 取扱하였고, 그에 基因한 心理活動, 思惟過程의 取扱이 잇섯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우리는 어더케 그 時代의 妬忌的 物質觀에서 이 飛躍이 잇섯슬가를 考察하자.

以上에 말함과 가티 페이엘, 바하의 唯物論에는 革命的, 動的 意義를 發見할 수 업다. 이에 그 生的 意義를 招來케 한 것은 헤겔哲學이다. 헤겔哲學의 根底는 實在가 思惟라는 点이다. 眞實한 實在는 純粹思惟, 純論理의 世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心理를 研究함에는 生理學과 生物學의 根本的 指摘을 썩나서 純粹論理의 가테고리의 關係를 研究함에 잇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實在的

이며 具體的인 事物, 實在, 生成, 質, 量 이러한 經驗에서 抽象하고 概括하는 바와는가장 멀리 分離되었었다. 이와 가티 그의 實在觀은 形想上이며 絶對的 이다. 이것이 헤겔學說의 根據인 同時 出發點이다. 그러나 이 根據에서 出發하여 進行하는 過程의 論理的 進展을 取扱하는대 이르러 新奇한 方法이 잇스니 그는 卽 辨證法이다. 그는 思惟過程의 進展相이니, 그가 正反合의 續開 反復的 한 곳 엮는 聯珠와 가튼 것이다. 이가 思惟過程의 正體라고 하였다. 勿論 그는 現代의 認識理論과 가티 生命의 向上維持慾이 動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前述함과 가티 純粹論理 이 展開相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의 心理的 發達相을 內省內觀할 새 그 形式만이 眞理인 것을 能히 首肯할 수 잇슬 것이니, 幼時에 가졌든 單純한 經驗이 展開하여 오늘날의 人生觀, 世界觀을 니루엮는 바 그 過程을 察하면 正反合의 進展을 잘 理解할 수 잇슬 것이다. 이와 가티 헤겔은 本質에 잇서서는 思惟로써 土臺하고 進展形式에 잇서서는 辨證法을 使用하얏음을 우리는 알았다. 이에 맑스는 이 形式的 辨證法을 그야말로 辨證法的으로 展開시켜 다음과 가튼 局面에까지 띄치게 하얏다. 卽 一, 一般理學的 方法論(認識, 經驗을 含하여)으로서의 辨證法이 自然科學 上의 方法論으로서의 辨證法, 三, 歷史의 辨證法이 是다. 그리하여 가장 詳密히 展開식힌 것이 歷史的 辨證法이다. 「그리하여 眞實한 實在는 物質이다. 思惟가 實在를 規定한 것이 아니라 實在가 思惟를 規定한다. 卽 物質이 思惟를 規한다. 그는 動的 領域에 잇서 正, 反, 合의 過程을 反復한다.」 하얏다고 括할 수 잇다. 그리하여 出發點이 生에 불타는 衝動이라 하는대 다시 想及할 새 우리는 新心理學과 同座에 羅列하여 보자. 生의 滿足點이 決코 □□□이 아니라 하얏다. 亦是 物質이 眞正한 實在임을 말한다. 다음은 三段的인 그 滿足 行程이며 對立, 抑壓, 現象 內에서 辨證法的 動態를 發見할 수 잇다. 一般的 辨證法的 展開는 이에 니르렀다. 新心理學과 맑스學說 出發點의 一致, 이것이 어찌 偶然이라?

筆者는 一部 맑스學者의 精神分析學에 對한 懷疑를 沒覺에 附하고, 이에 本稿를 草함이 아니다. 그러나 一二層性的 展開에 個性的 色彩을 두터웁게 하는 그의 失敗로서 輕輕然히 全部에 懷疑함은 取할 바 길이 아니다. 그리고 吾人은 新心理學은 定處期에 잇다고 보지 안코 生成期에 잇다고 본다.